

농산물 안전성 분석 능력 3년 연속 우수성 인정받아

전주농기센터, FAPAS서... 살균제 크레속심메틸 등 분석값 정확도 높아

〈국제 비교속련도 평가〉

전주시가 3년 연속으로 국제적으로 잔류농약 분석 능력이 매우 탁월한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FERA)에서 주관한 국제 비교속련도 평가(FAPAS,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에 참가해 3년 연속으로 잔류농약 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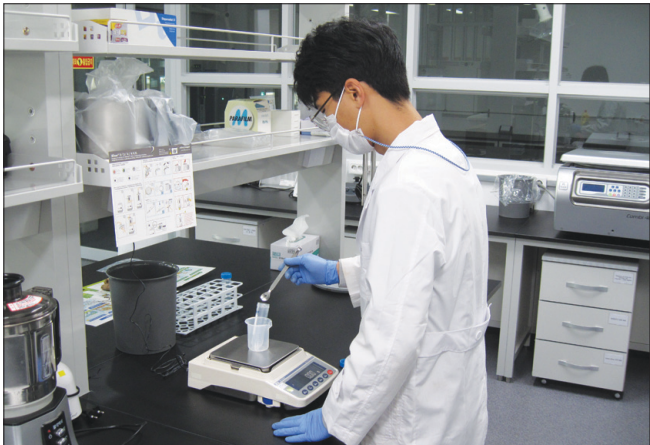
‘국제 비교속련도 평가(FAPAS)’는 분석기관의 다양한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속련도 평가 프로그램으로, 국제적으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 세계 각 나라의 정부와 대학, 민간기관 등이 분석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정부기관과 대학연구소, 공인시험기관 등 66개 분석기관이 참여했다.

평가는 참여기관들의 오차범위를 산출해 절대값(Z-score)이 $\Delta \pm 2$ 이하 만족 $\Delta \pm 2 \sim 3$ 의심 $\Delta \pm 3$ 초과 불만족으로 평가되며, 0에 가까울수록 분석 결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국제 비교속련도 평가 분야 중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능력 부분에 참가해 농산물 토마토 시료의 잔류농약을 분석해 제출한 10개 농약성분 분석값이 모두 ± 1.6 이하의 표준점수(± 2.0) 범위 내로 분석 능력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Δ 살균제 크레속심메틸(0.0) Δ 플루아지남(0.3) Δ 살충제 사이안트라닐리프롤(0.1) Δ 옥시사디메테네메틸(0.1)



전주시농업기술센터가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FERA)에서 주관한 국제 비교속련도 평가에 참가해 3년 연속으로 잔류농약 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사진=전주시농업기술센터 제공〉

Δ 인독사카브(0.5)의 분석값은 ± 0.5 이하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국제 비교속련도 평가와 동일 방법으로 평가하는 농촌진흥청 주관 속련도평가 프로그램에도 3년 연속 참여해 분석 능력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을 운영하며,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농가의 생산단계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 전주푸드직매장의 유통단계 농산물 등 연간 1000여 점의 잔류농약 463성분을 분석하는 등 전주시 안전농

산물 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잔류농약 분석능력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분석업무 담당자들의 분석장비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강세권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3년 연속 공신력을 갖춘 국제 비교속련도 평가에서 국제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인정받은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지역 중기 6개 제품 ‘바이전주 우수상품’ 인증받다

가감한지엔페이퍼 고궁애창 한지창호지 등

전주에서 생산·가공된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들이 ‘바이전주(BUY 전주) 우수상품’으로 새롭게 인증을 받았다.

전주시는 우수상품 발굴 및 우수업체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바이전주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6개 제품을 바이(BUY)전주우수상품으로 인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된 6개 제품은 Δ 농업회사법인 (주)소부당의 카스텔라·딸기·초코 생크림 치즈떡 Δ (주)에프엘컴퍼니의 저세상 직화불닭밥 Δ (유)씨엠에프앤비의 한생원 전주콩나물 해장육수팩 Δ 고감한지엔페이퍼의 고궁애창 한지창호지 등이다.

인증된 제품 중 (주)소부당의 생크림 치즈떡은 쫄깃한 찹쌀떡에 크림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인증받은 ‘고궁애창 한지창호지’.

치즈와 생크림을 더한 제품이다.

또한 (주)에프엘컴퍼니의 저세상 직화불닭밥은 직화 공정을 통해 불향과 매운맛을 극대화한 밀키트형 닭

발 제품이다.

(유)씨엠에프앤비의 한생원 전주콩나물 해장육수팩은 전주10미(味) 중 하나인 콩나물을 활용해 지역 특산물을 가공식품으로 발전시킨 제품이다.

끝으로 고감한지엔페이퍼의 고궁애창 한지창호지는 전통 한지 소재를 기반으로 개발된 창호지 제품으로, 내구성과 가공성이 뛰어나고 ISO 인증을 받은 생산설비를 통해 품질 및 안정성이 확보된 점이 특징이다.

시는 이들 바이전주우수상품 선정업체에 우수상품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우수상품 홍보 및 각종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선정업체들은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시 최대 3억 원, 3.5%의 이차보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달부터 전북 메타버스지원센터를 통해 전북지역 가상융합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가상융합산업 전문인재 양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0월까지 총 12회 걸쳐 교육 진행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은 이달부터 전북 메타버스지원센터를 통해 전북지역 가상융합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XR·메타버스 등 가상융합 핵심 분야의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실무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전북 지역 재직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제1기 교육은 사전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재직자 맞춤형 과정으로 기획됐으며, 영화 ‘짜빠’로 부산영화평론가협회 촬영상을 수상한 김영철 영화감독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전문 촬영 기법을 전수했다.

교육은 고화질 촬영 장비인 ‘8K RED HELIUM’이 활용됐으며, 후반작업에서는 프리미어 프로시 워크플로

우 기반의 다빈치 리졸브 색보정 실습도 이뤄졌다.

강사진으로는 영화 ‘살수’의 컬러리스트 원경훈 강사와 어도비 프리미어 국제 공인 강사인 김철현 교수 등 총 3명이 참여해 13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전북 메타버스지원센터는 현재 진행된 2차례의 교육에 이어 총 10기 과정의 잔여 교육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교육은 Δ 재직자 실무 역량 강화 Δ 대학생 취업 연계 Δ 일반시민 기술 저변 확산 등에 초점이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교육이 전문 강사진의 높은 역량과 실습 중심 커리큘럼을 통해 기술 역량 향상(Skill-up)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전북지역 가상융합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 약령시 창립비

광복 80주년 맞아 이전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인 전주 약령시 창립비가 이전됐다.

전주시는 지역 내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존 다가동에 세워졌던 ‘전주 약령시 창립비’를 전주역사박물관 야외 전시관으로 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주 약령시’는 한약재를 유통·판매하는 전통시장으로, 대구·원주와 함께 조선시대 3대 약령시 중 하나로 손꼽혀왔다.

전주 약령시는 효종 2년(1651년) 처음 개설된 이후 1900년대 초 폐지됐다가 1923년 다시 개설됐으며, 이를 기념해 ‘전주 약령시 창립비’가 세워졌다.

1930년대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시로 성장해 약재상과 구매자,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로 붐비는 상업 중심지로 발달했다.

다만 전주 약령시 비에는 3.1운동을 반대하는 전북자성회의 전주지부장과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박기순과 전주군 참사로 조선총독부 지방행정 차관을 맡았던 이강민, 전라북도 도평의원 오오키 료사쿠(大木良作)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에 시는 일제 잔재인 이 비를 기존 위치에서 철거한 후 전주역사박물관으로 옮겨 교육·전시 자료로 활용기로 결정했다.

/권희성 기자



‘비위행위 무혐의’ 무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진실 바로잡을 것”

비위행위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무주경찰서 소속 A 경관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 경관은 자신의 비위행위가 아니었음에도 담당 검찰관들의 부당하고 강압적인 수사로 기소의 견으로 몰아세워 본인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1급사인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무주경찰서(3급서)로 발령을 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C 담당 검찰관은 부실한 조서를 성과로 간주해 특진까지 하는 걸 보면서 상심감과 박탈감에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2022년 6월 24일 전주

금암광장 교통사고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이 모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 지인 K 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운전자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K 모씨는 경찰에 본인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당시 전주덕진서에 근무 중인 A 경관은 본인과 친분이 있는 K 모씨가 이번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고절차와 운전자 바뀌치기 등에 관한 전화문의에 이를 설명하고 또한 실체를 자백하라고 전했다. 검찰계가 이를 공무상비밀누설로 판단해 3차례에 걸쳐 A 경관을 조사했고 결국 기소의견으로 전주지검에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상 비밀로 볼 수 없고 누설의 증거가 부족했다”며 A

경관에게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A 경관이 수사 책임자도 아니고, 사건 내용 또한 이미 다른 관련자들을 통해 전달된 바 있으며 이를 전달한 것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고의적인 비밀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를 토대로, A 경관은 “감찰관들의 근거 없는 의혹 수사 진행과 반복적인 인신공격성 언사 및 강압 수사 등으로 정신적 고통은 물론, 승진에서도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32년의 경찰의 삶을 자부심 하나로 살아 왔는데 누명을 쓰고 명예가 실추됐다”며 “반드시 이를 회복하고 진실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